다락방 리더 해설지 (3/15 주간)

인간, 하나님의 형상 (창 1:26-31)

1. 인간의 창조는 어떤 점에서 다른 피조물의 창조와 다릅니까?(26절)

26.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
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'

(1) **'심사숙고'와 '협의'의 과정이 있었습니다:** 다른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는 "~가 있으라"라는 일방적인 명령만 있지만,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"우리가.... 하자"라는 표현이 나옵니다.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누군가와 '사전 모의'를 하시는 듯한 모습으로,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더욱 심사숙고하셨음을 보여줍니다.

(2) **'우리'라는 공동체적 계획 속에서 탄생했습니다:** 26절에는 "우리(복수형)"가 세 번이나 등장합니다. 이것은 전통적으로 성 삼위 하나님의 협의 또는 천상 회의의 소집으로 해석됩니다. 어떤 해석이든지, 인간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계획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임을 강조합니다.

(3) **인간은 창조 세계의 목적이자 절정입니다:**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마지막 날 인간의 창조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. 나머지 피조물들은 모두 인간의 생활 환경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

나눔 **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명령 한 마디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'심사숙고'하셨다는 사실이, 오늘 나의 자존감에 어떤 위로와 확신을 주나요?**

2. 인간은 누구를 닮게 창조되었습니까?(27절)
창세기 1장의 맥락에서 볼 때,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?(1-31절)

27.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

(1) **인간은 하나님의 속성을 반사하는 존재입니다:** 하나님의 형상(쩰렘)이라는 말과 하나님을 닮았다(데무트)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을 거울처럼 반사한다는 뜻입니다.

(2) **인간의 가치는 능력이 아니라 '관계성'에 있습니다:**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협의하시고 동역하시는 분입니다("우리가.... 하자").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인간도 서로 사랑받고 사랑하며 돕는 관계 속에 존재할 때 가장 존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

(3) **인간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대리자입니다:** 고대에서 '형상'은 왕의 통치권을 나타냅니다.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선언은 인간이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며, 인간이 그분의 대리자(agent)로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부름받았음을 의미합니다.

(4) **인간의 창조는 남녀의 평등과 상호 보완성을 포함합니다:** 남성과 여성이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므로, 두 성별이 서로 공존하고 보완하여 하나가 될 때 개인과 공동체가 더 성숙해집니다.

나눔 **세상은 인간의 가치를 능력이나 성과로 평가하지만, 하나님은 '관계'와 '존재' 자체를 귀히 여기십니다. 내 주변의 연약한 이들을 대할 때, 나는 그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할까요?**

3.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떤 축복과 사명을 주십니까?(28절)
이것이 왜 중요합니까?

28.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, 땅을 정복하라,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

(1) **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주셨습니다:** 생육(생산성), 번성(자손의 생산), 충만(세계를 가득 채움)은 인간에게 주어진 첫 번째 축복이자 의무입니다. 하나님은 이 지구가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.

(2) **'공동 통치자'의 지위를 부여하셨습니다:** 하나님은 자신의 통치권을 인간에게 일부 양도하셨습니다.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땅을 경영하는 공동 경영자이며,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만큼 특별하게 생각하신다는 증거입니다.

(3) **창의적인 노동과 돌봄의 사명(문화명령)을 주셨습니다:** '정복하고 다스리라'는 것은 세상을 파괴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세상을 돌보라는 것입니다. 인간은 일하고 창조하고 다스릴 때 본연의 힘이 나며 존재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.

나눔 **내가 지금 하는 일(직장, 가사, 봉사 등)이 단순히 생존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, 세상을 가꾸라는 하나님의 '문화명령'임을 깨닫는다면 나의 일하는 태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?**

4.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어떠했습니까?(31절)
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?

31.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

(1) **조화로운 창조 세계를 극찬하십니다:** 다섯째 날까지는 "좋았더라"라고 하셨으나, 창조를 마치신 여섯째 날에는 "심히 좋았더라"라고 하십니다. 이것은 '모든 피조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때 더없이 아름답고 가치 있다'는 평가입니다.

(2) **인간의 창조는 '순종'을 통해 완성됩니다:** 인간을 창조하신 직후에 "좋았더라"가 바로 나오지 않고 모든 것을 종합하여 "심히 좋았더라"라고 하신 것은, 인간의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.

(3) **다스림과 복종의 양면성을 보여줍니다:**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인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해야 하는 존재입니다.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다스림의 사명을 탁월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.

나눔 **하나님은 조화로운 세상을 보며 '심히 좋다'고 하셨습니다. 그런데 오늘 나의 삶이나 관계 속에서 조화로움이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까?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질서가 세워지도록, 오늘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순종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?**